

## 발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에로티시즘을 중심으로-

이 미 옥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인간은 자연계에서 두 발로 걷는 유일한 존재로, 발은 사람의 표정과 마찬가지로 상황, 사람, 감정 등에 반응하여, 분위기나 느낌을 무의식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우아하고 품위있는 걸음걸이는 성적 매력과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핵심이 되며, 이것은 특히 여성에게 적용된다. 인간뿐 아니라 다른 많은 동물들에게서도 걸음걸이는 구어나 짹짹거리는 기간동안 과장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데, 이는 성적인 신호뿐 아니라 성적 흥분 그 자체에도 기여한다.

정상적인 발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강한 발을 의미하며, 발은 사람과 대지를 연결시키는 연결 고리로 대지-발-뇌 사이의 파동 전달기관이다. 고대에서는 발이 대지와 접촉하는 것에서 연상하여 여성의 발을 다산과 연결시켜, 여성의 발과 발의 노출을 성적 상징화하였으며, 성기의 노출보다 발의 노출을 더 수치스러워 하는가 하면, 이성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이성의 발을 벗긴다는 것은 성적 행위로 성적 소유의 표식이 되어 양말이나 신발이 결혼의 상징이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여성의 발도 이와 같은 수치심 또는 애절의 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여성의 발의 은폐와 장식은 예의범절과 성적 매력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을 항상 지각하여야 한다. 이는 발키스의 두 가지 의미에서 잘 드러나는데, 하나는 겸손과 복종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행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골적인 성적 쾌락의 표현으로 발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해방의 힘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발은 성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성적 매력을 발산하며, 발언어(podolinguistics)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감정, 태도, 욕망을 성적으로 전달한다. 그 단적인 예로, 어린 아이가 본능적으로 발가락을 빠는 습관은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은 성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어린 아이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에로틱한 파동과 성감대는 팔다리, 엉덩이, 가슴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성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 특정한 스타일의 신발을 신음으로써 그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의복이 신체를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한 기능뿐 아니라 신체에 더욱 강렬한 성적 매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처럼 발과 신발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대에

속에서 발은 끊임없는 신체 변형의 대상이 되어왔다.

모든 신체의 변형은 하나의 패션이며, 패션은 환상 또는 현실에서의 신체 변형을 동반하는데, 하나의 예술형태인 구두 스타일이나 패션은 인체 중 특히 발을 변형시켜 새로운 미적 형태를 제시하였으며, 발은 끊임없이 도색적인 구두 패션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구두는 수세기에 걸쳐 성적 흥분과 섹스 어필을 위해 디자인되고 착용되어 왔으며, 에로틱한 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발을 한 층 더 관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되고 있다.

이것은 패션, 허영과 관련된 신발 그리고 발을 변형시켜 성적 매력을 한층 더 고취시키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난 수세기 동안 작은 발은 여성스러움의 상징, 사회적 또는 귀족적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여성들은 작은 구두에 발을 맞춰 넣으려고 애를 썼고, 이는 하이힐, 뽀족구두, 기타 여러 구두 스타일을 유행시켰다. 중국 전족의 잔인한 과정을 매도하지만, 이러한 관습이 유럽과 미국의 여성들 사이에서 린넨으로 자신의 발을 묶는 것으로 유행했듯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각종 발 변형에 자발적으로 굴복해온 것이다.

이와 같이 신발이나 기타 장식물로 발을 치장해 성적 매력을 높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이는 발이 성적 특성을 지녔음을 잘 나타내 준다. 이 시대의 모든 인류 중 특히 여성은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 구두를 신었으며, 특정한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스타일의 구두를 선택하고 착용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가장 알려지지 않은, 무의식적인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내면의 목소리인 발언어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이거나 공격적 또는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일 수도 있는, 성적 흥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성심리, 또는 남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심리적 태도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